

박홍근 “윤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 지지율 정권 말 레임덕 수준” 검찰 요직 배치 등 인사 난맥 질타 “서민·중산층 민생 대책 적극 협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했다.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 의혹 등 정권의 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권력 사유화 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민심의 더 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이긴 하지만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생각이 담긴 공세 메시지로 돌아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두고는 자세를 낮추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 등 ‘내로남불’을 사과하고, 민생 개선

을 위한 여당의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절반가량을 인사 난맥상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데 할애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지인 채용’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검찰 출신의 요직 배치, 건검희 여자 관련 논란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지지율)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난 민심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겨냥해 직격탄 쏘았다.

그 이면에는 현 정부의 약점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려는 생각도 엿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현정사상 초

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탄핵 이슈까지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끝낸 민심을 향해 다시 한번 권력에 대한 준엄한 감시와 평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등을 부각하며 ‘레임덕’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내로남불”, “협치 의지 부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경제·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현정사상 초

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탄핵 이슈까지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끝낸 민심을 향해 다시 한번 권력에 대한 준엄한 감시와 평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보폭 넓히는 국힘 당권 주자들... 권성동 원톱 체제에 쓴소리

김기현 공부모임·안철수 토론회

“당내 사정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공부모임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3회차를 맞은 김 의원의 모임에는 56명, 2회차인 안 의원의 토론회에는 35명이 각각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최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을 둘러싼 대통령

실 ‘사적채용’ 해명 논란, 친윤계 불화설 등으로 ‘리더십 리스크’가 거론되는 틈을 잘 빠르게 파고들며 이들이 당내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이후 줄곧 정권 초기 집권여당에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 상태를 ‘결위’로 해석하며 직무대행 체제를 관철한 권 대행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이런 주도권 확보 다툼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적 경제·

안보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며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이 권 대행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내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 21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토론회를 “인수위 2기”로 표현한 것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으로서 현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부각,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적 경제·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성동 채용 발언 사과... “전적으로 제 불찰”

“청년들에 상처 줬다”

국힘 “하자 없다” 방어도

국민의힘은 2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등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급으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

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썼다.

권 대행은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적 경제·

적었다.

권 대행은 자신의 추천으로 채용된 우모 씨에 대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발언으로 논란을 진화시키는 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들이 채용되는 과정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국힘 국회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의원 내정

국민의힘은 20일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장제원 의원 두 분이 법사위원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장 의원에게서 ‘자기는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수석으로 하여금 통화하게 했더니 같은 얘기를 했고, 오늘도 (장 의원과) 통화했다”며 “자신이 김 의원보다 나이가 어린 만큼, 같은 선수지만 김 의원이 하는 게 순리라 생각한다”며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의총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고, 의원들로부터 장 의원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20·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하는 건데, 제가 3선 의원 중 나이가 어린 측에 든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 법사위원장을 안하겠다고 원내대표께 말씀드렸고, 오늘 의총에서 그렇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